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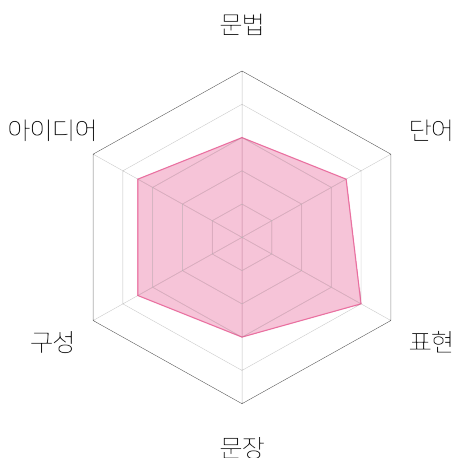


### 종합 평가

# 83.5 점

문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단어 선택과 표현, 문장 구성이 깔끔하고 논리적입니다. 구성도 잘 되어 있어서 흐름이 좋습니다. 아이디어도 좋은데, 좀 더 깊이 있는 사유와 함께 연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독후감을 써보세요!

### 지표 분석



[문법]	B
[단어]	B+
[표현]	A
[문장]	B
[구성]	B+
[아이디어]	B+

- [문법]** 규칙을 잘 지키며 글을 쓰는 법을 알고 있어요.
- [단어]**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앞으로 더욱 풍부한 글을 쓸 수 있도록 꾸준히 학습해 보세요.
- [표현]** 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접속 표지도 활용해 보세요.
- [문장]** 문장의 형태와 구조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요.
- [구성]** 글을 논리적인 순서에 맞춰 구성하는 법을 알고 글의 장르에 맞춰 주제를 전개하고 있어요.
- [아이디어]** 전반적으로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어요. 어려움 없이 글의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 통계 분석



전체 글자 수	1097 자
전체 문장 수	25 개
전체 문단 수	5 개
단어의 평균 길이	3.0 자
분석 오류 문장 수	0 개
글 흐름의 자연스러움	69.7 %

수업 시간에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었다. 제목이 '마당을 나온 암탉'이어서 왜 마당을 나왔는지 궁금했다. 선생님은 이야기의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표지를 먼저 잘 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표지를 꼼꼼히 살펴 보았는데 닭과 오리 그림이었다. 표지까지 본 나는 '집 나온 닭과 오리가 함께 사는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으로 책의 첫 장을 펼쳤다. 생각보다 빠르게 읽혀진다.

읽어 보았더니 양계장에서 알만 낳는 닭이, '병아리의 탄생'을 꼭 보겠다는 꿈이 생겨 양계장 밖으로 나가게 된 이야기였다. 그 닭의 이름은 '잎싹'이었다.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는 잎싹의 꿈은 자유롭고 싶다는 말의 다른 말처럼 들렸다. 즉, 좁은 양계장 밖으로 나가서 자유를 누리며 꿈을 이루고 사는 것이 잎싹이 바라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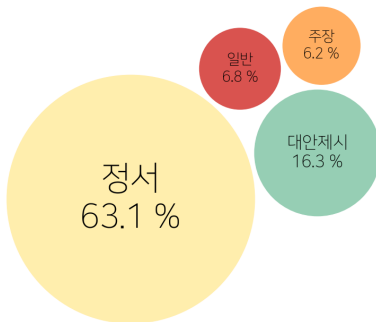
하지만 잎싹은 양계장 밖을 나가서 계속 족제비에게 쫓기고 잘 곳도 정확히 없어 항상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자유롭고 싶다면 배고픔이나 어려움 따위는 가볍게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로 생각이 들었다.

나그네가 초록머리와 잎싹이를 위해 희생해준 장면도 기억에 남는다. 나그네와 뽀얀오리 사이에서 낳은 초록머리와 초록머리를 품어 준 잎싹이를 보호하기 위해 나그네는 스스로 족제비에게 자신의 몸을 먹이로 바쳤다. 족제비가 배가 부르면 초록머리와 잎싹이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그네가 자기 목숨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식인 초록머리를 사랑하고 잎싹이에 대한 고마움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또 알고보니 잎싹을 쫓는 족제비도 역시 새끼를 키우는 엄마였다. 잎싹은 그것을 알게 된 후 족제비를 이해했고 결국 자신의 목숨을 족제비에게 내어준다. 이 부분에서 엄마가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자유와 행복을 찾아 나간 잎싹이가 결국 소중한 존재를 위해 희생한다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인 책이었다. 그리고 읽는 내내 엄마 생각이 많이 났다. 엄마도 잎싹이처럼 나를 보기 위한 과정을 거쳤을까? 나도 어른이 된다면 엄마나 잎싹이 같은 용기 있고 희생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 글 탐색

문장과 문단의 성격을 분석하여 '성분 분석 버블차트'를 제시합니다.  
'주장/설명/찬성반대/대안제시/정서/일반진술'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쓴 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서 : 개인적인 감정이 드러난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대안제시 :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일반 : 주로 글짓기에서 정서 표현을 제외한 글을 의미합니다.  
주장 : 자기의 의견을 내세운 표현과 문장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 자유, 희생, 마당

**도움말** 시가 이 글의 주제로 선정한 단어들이입니다.

**좋아요** 문단에 적절한 문장 수를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적절한 길이의 문단을 활용하세요!

**좋아요** 주제와 어울리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어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문단 탐색

### 1 문단

수업 시간에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었다. 제목이 '마당을 나온 암탉'이어서 왜 마당을 나왔는지 궁금했다. 선생님은 이야기의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표지를 먼저 잘 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표지를 꼼꼼히 (1)살펴 보았는데 닭과 오리 그림이었다. 표지까지 본 나는 '집 나온 닭과 오리가 함께 사는 (2)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으로 책의 첫 장을 펼쳤다. 생각보다 빠르게 (3)읽혀진다.

(1) 살펴 보았는데

→ 살펴보았는데

**도움말** '두루두루 자세히 보다', '무엇을 찾거나 알아보다', '자세히 따져서 생각하다'를 뜻하는 동사는 '살펴보다'로 쓰여 바릅니다.

(2) 이야기인가? 라는

→ 이야기인가?라는

**도움말** 강조하는 말이나 지정하는 말에 쓰거나 대화나 직접 인용 또는 간접 인용에 쓰는 문장 부호인 큰따옴표(")나 작은따옴표('')는 뒤에 오는 조사나 어미와 붙여 씁니다.

(3) 읽혀진다

→ 읽힌다

**도움말** 겹 피동형으로 대치어를 참고해 쓰시기 바랍니다.

※ 강조기호가 사용되었습니다. : '마당을 나온 암탉'

**도움말** 문장 안에서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는 겹낫표(『』), 겹화살괄호(《》)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큰따옴표를 쓰는 것도 허용되므로 알맞게 고쳐 보세요.

## 2 문단

읽어 보았더니 양계장에서 알만 낳는 닭이, '병아리의 탄생'을 꼭 보겠다는 꿈이 생겨 양계장 밖으로 나가게 된 이야기였다. 그 닭의 이름은 '잎싹'이었다.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는 잎싹의 꿈은 자유롭고 싶다는 말의 다른 말처럼 들렸다. (4) 즉, 좁은 양계장 밖으로 나가서 자유를 누리며 꿈을 이루고 사는 것이 잎싹이 바라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4) 즉,  
→ 즉

**도움말** 접속표현 이후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강조기호가 사용되었습니다. : '병아리의 탄생', '잎싹'

**도움말** 큰따옴표는 대화(직접 한 말)이거나, 인용한 말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작은따옴표는 마음 속으로 한 말이거나, 큰따옴표 안에서 다른 말을 인용하거나, 새로운(혹은 중요한) 용어인 경우에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따옴표의 사용에 유의하세요. 따옴표는 반드시 열고 닫는 것이 한 세트여야 합니다.

**좋아요** 다양한 어휘로 느슨하지 않은 문단을 완성했습니다. 독자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문단입니다.

**고쳐요** ['병아리의 탄생'을 꼭 보겠다는 꿈이 생겨 양계장 밖으로 나가게 된 이야기였다. > '병아리의 탄생'을 꼭 보겠다는 꿈이 생겨 양계장 밖으로 나간 이야기였다.] 다른 힘에 의해 나가게 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잎싹의 노력, 능력으로 나갔다는 것으로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피동 표현을 주의해서 써주세요.

## 3 문단

하지만 잎싹은 양계장 밖을 나가서 계속 족제비에게 쫓기고 잘 곳도 정확히 없어 항상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다. 자유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5) 자유롭고 싶다면 배고픔이나 어려움 따위는 가볍게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로 생각이 들었다.

(5) 자유롭고 싶다면  
→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도움말**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진 그대로 지속하는 가운데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고'는 동사에만 붙습니다.

※ 정확히, 계속, 항상, 무슨

**좋아요** 해당 문단은 의도를 표현하는 단어를 풍부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도를 드러냄에 있어 효과적인 글입니다.

## 4 문단

나그네가 초록머리와 잎싹이를 위해 희생해준 장면도 기억에 남는다. 나그네와 (6) 뽀얀오리 사이에서 낳은 초록머리와 초록머리를 품어 준 잎싹이를 보호하기 위해 나그네는 스스로 족제비에게 자신의 몸을 먹이로 바쳤다. 족제비가 배가 부르면 초록머리와 잎싹이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그네가 자기 목숨을 (7) 희생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식인 초록머리를 사랑하고 잎싹이에 대한 고마움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또 (8) 알고보니 잎싹을 쫓는 족제비도 역시 새끼를 키우는 엄마였다. 잎싹은 그것을 알게 된 후 족제비를 이해했고 결국 자신의 목숨을 족제비에게 내어준다. 이 부분에서 엄마가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6) 뽀얀오리  
→ 뽀얀 오리

**도움말** 관형사형 어미 뒤에 오는 말은 띄어 씁니다. (예) 데뷔할예정(X) 데뷔할 예정(O) / 이런식으로(X) 이런 식으로(O)

(7) 희생 할  
→ 희생할

도움말 이 예의 '-하다'는 앞의 명사와 붙여야 합니다.

(8) 알고보니  
→ 알고 보니

도움말 보조 용언 '보다'가 앞 단어와 연결 어미로 이어지는 '-고 보다', '-다 보다', '-가 보다'의 구성으로 쓰이면 앞말과 띄어 씁니다.

**포인트** 겹문장을 주로 사용한 문단입니다. 겹문장을 많이 사용하면 글이 복잡해져 정확한 의미 전달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적으로 집중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문장을 적절히 나누어 표현해 보세요.

**코멘트** 인상 깊은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적기보다는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책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 그 장면을 보고 무슨 감정이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 5 문단

자유와 행복을 찾아 나간 앞씨가 결국 소중한 존재를 위해 (9)희상한다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인 책이었다. 그리고 읽는 내내 엄마 생각이 많이 났다. 엄마도 앞씨처럼 나를 보기 위한 과정을 거쳤을까? 나도 어른이 된다면 어머니 앞씨가 같은 용기 있고 희생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10)노력해야 겠다.

(9) 희상한다는  
→ 희생한다는, 회상한다는

도움말 입력 오류입니다.

(10) 노력해야 겠다  
→ 노력해야겠다

도움말 '-겠-'은 어미이므로 앞말과 붙여 씁니다.

**코멘트** "엄마 생각이 났다."라는 표현도 좋지만 왜 엄마 생각이 났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코멘트**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 느낌이 들었는지 충분히 적지 않았습니다. 독서 감상문은 감상 위주로 적어 주세요.

# 지금 평가 받은 글로 키위챗과 대화해 보세요.

※ QR코드를 인식하거나 클릭하면 '키위챗'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내가 쓴 글을 읽고, 더 넓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질문해요.
- 나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 글에 드러난 나의 생각과 경험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